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23년 11월 13일

보고서 제출자 : 김 명 호

(사)통일문제연구원

제1장 연구 개요

한반도는 세계의 국가 가운데 가장 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즉, 지금도 잠시 전쟁을 쉬고 있을 뿐이다.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정전협정은 군사적 교전을 중지하는 군사적 성질의 합의이며, 평화협정이라는 정치적 성질의 합의를 맺어야 전쟁은 끝난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은 정전협정을 무수히 위반하였다. 2023년에 일어난 북한의 도발건을 살펴보면, 2023년의 시작인 1월 1일 2시 50분, 평양시 룡성구역에서 탄도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월에 3회, 3월에 12회, 4월 4회, 5월과 6월에 각 1회, 7월에 4회, 8월과 9월에 각 2회 등 무수한 도발을 감행하였다.¹⁾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총연맹 행사에서 문재인 정권을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칭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윤대통령의 의중은 분명하였다.

그리고 지난 2022년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윤 정부가 출범한지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도발을 막기위해 전략자산 전개를 합의했다. 그 이후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 전략폭격기, 전투기,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이 참여하는 훈련을 수십 차례가 넘게 진행하였다. 전략자산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무기를 일컫는다. 즉,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대비한 한미 훈련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 수십 차례 진행된 것이다.²⁾

더구나 금년 9월까지 나타난 북한의 행보는 평양의 핵 집착이 더욱 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미묘한 불안 징후 역시 노출되고 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북한의 식량 부족설은 2023년에 들어서는 개성 등 일부 대도시에서의 아사자 발생설로 이어지면서 북한이 경제면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암시되었다.³⁾

이와 같이 어려운 한반도의 정세 속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는 강원도 및 경기도의 대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남북통일 정책’ 및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내용은 ① ‘응답자의 인적사항’, ② ‘통일 정책 문제’, ③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정책’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SPSS V.19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

1) 나무위키, “2023년 북한 미사일 도발,”

<https://namu.wiki/w/2023%EB%85%84%20%EB%B6%81%ED%95%9C%20%EB%AF%B8%EC%82%AC%EC%9D%BC%20%EB%8F%84%EB%B0%9C>

2) <http://www.minplusnews.com>

3) 차두현, (2023). “2023년 북한 동향 분석: 핵집착의 지속과 경로종속성.” 아산정책연구원, issue brief, 2023-20.

며, 설문에 답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대해서는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북한에 대한 생각’, ‘통일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북정책’, ‘통일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대상’ 등은 3개의 답변이 가능한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3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강원도 및 경기도의 대학생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632부의 설문지 가운데 인적사항에 대한 답이 없거나 설문항목에 대하여 불성실한 답을 한 10부를 제외하고, 622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제2장 기초연구

[A. 인적사항]

1. 성별

설문지에 답한 사람은 ‘남자’가 428명(68.8%), ‘여자’가 194명(31.2%)으로 나타났다.

<표 1-1> 성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남자	428	68.8	68.8	68.8
	여자	194	31.2	31.2	100.0
	합계	622	100.0	100.0	

2. 나이

설문지에 답한 사람들의 나이는 ① ‘20세 이하’ 52명(8.4%), ② ‘21-30세’ 299명(48.1%), ③ ‘31-40세’ 61명(9.8%), ④ ‘41-50세’ 71명(11.4%), ⑤ ‘51-60세’ 81명(13.0%), ⑥ ‘61세 이상’ 58명(9.3%)으로 나타났다.

<표 1-2> 나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0세 이하	52	8.4	8.4	8.4
	21-30세	299	48.1	48.1	56.4
	31-40세	61	9.8	9.8	66.2
	41-50세	71	11.4	11.4	77.7
	51-60세	81	13.0	13.0	90.7
	61세 이상	58	9.3	9.3	100.0
	합계	622	100.0	100.0	

3. 직업

설문지에 답한 사람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① ‘대학 1학년’ 68명(10.9%), ② ‘대학 2학년’ 144명(23.2%), ③ ‘대학 3학년’ 62명(10.0%), ④ ‘대학 4학년’ 55명(8.8%), ⑤ ‘일반인’ 293명(47.1%)으로 나타났다.

<표 1-3> 직업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대학 1학년	68	10.9	10.9	10.9
	대학 2학년	144	23.2	23.2	34.1
	대학 3학년	62	10.0	10.0	44.1
	대학 4학년	55	8.8	8.8	52.9
	일반인	293	47.1	47.1	100.0
합계		622	100.0	100.0	

[B. 통일 정책 문제]

1.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① ‘반드시 통일돼야 한다’ 134명(21.5%), ② ‘조금 필요하다’ 132명(21.2%), ③ ‘보통이다’ 122명(19.6%), ④ ‘아직 시기상조다’ 177명(28.5%), ⑤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57명(9.2%)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42.7%가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통일의 필요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반드시 통일돼야 한다	134	21.5	21.5	21.5
	조금 필요하다	132	21.2	21.2	42.8
	보통이다	122	19.6	19.6	62.4
	아직 시기상조다	177	28.5	28.5	90.8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57	9.2	9.2	100.0
합계		622	100.0	100.0	

2. 통일에 대한 이익 정도

통일이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의 이익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① ‘이익이 매우 클 것이다’ 154명(24.8%), ② ‘이익이 조금 있을 것이다’ 220명(35.4%), ③ ‘이익이 거의 없을 것이다’ 108명(17.4%), ④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139명(22.3%) 등으로 나타났다. 즉, 질문에 답한 응답자들의 60.2%가 통일이 대한민국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통일에 대한 이익 정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이익이 매우 클 것이다	154	24.8	24.8	24.8
	이익이 조금 있을 것이다	220	35.4	35.4	60.2
	이익이 거의 없을 것이다	108	17.4	17.4	77.6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139	22.3	22.4	100.0
	합계	621	99.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		
합계		622	100.0		

3. 남북한 통일의 가능성

남북한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① ‘100% 가능하다’ 31명(5.0%), ② ‘50% 정도 가능하다’ 117명(18.8%), ③ ‘20~30% 정도 가능하다’ 243명(39.1%), ④ ‘불가능하다’ 155명(24.9%), ⑤ ‘모르겠다’ 75명(12.1%)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62.9%가 남북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2022년도의 설문조사에서 남북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65.7%의 응답자에 비하여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남북한 통일의 가능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00% 가능하다	31	5.0	5.0	5.0
	50% 정도 가능하다	117	18.8	18.8	23.8
	20~30% 정도 가능하다	243	39.1	39.1	63.0
	불가능하다	155	24.9	25.0	87.9
	모르겠다	75	12.1	12.1	100.0
합계	621	99.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		
합계		622	100.0		

4. 남북통일의 실현 전망

남북통일의 실현에 대한 전망에 대하여 ① ‘아주 빠를 것이다’ 10명(1.6%), ② ‘조금 빠를 것이다’ 29명(4.7%), ③ ‘조금 늦을 것이다’ 202명(32.5%), ④ ‘아주 늦을 것이다’ 271명(43.6%), ⑤ ‘불가능할 것이다’ 109명(17.5%)으로 나타났다. 즉, 남북통일이 불가능하거나 늦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의 비중이 93.6%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의 결과치인 86.8%와 비교하면, 조금 높은 수준이다.

<표 2-4> 남북통일의 실현 전망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아주 빠를 것이다	10	1.6	1.6	1.6
	조금 빠를 것이다	29	4.7	4.7	6.3
	조금 늦을 것이다	202	32.5	32.5	38.8
	아주 늦을 것이다	271	43.6	43.6	82.4
	불가능할 것이다	109	17.5	17.6	100.0
합계	621	99.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		
합계		622	100.0		

5.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도

국가안보에 대한 귀하의 관심도는 ① ‘관심이 아주 많다’ 106명(17.0%), ② ‘관심이 조금 많다’ 162명(26.0%), ③ ‘보통이다’ 246명(39.5%), ④ ‘관심이 조금 없다’ 57명(9.2%), ⑤ ‘관심이 아주 없다’ 27명(4.3%), ⑥ ‘모르겠다’ 23명(3.7%)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82.5%가 국가안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관심이 아주 많다	106	17.0	17.1	17.1
	관심이 조금 많다	162	26.0	26.1	43.2
	보통이다	246	39.5	39.6	82.8
	관심이 조금 없다	57	9.2	9.2	91.9
	관심이 아주 없다	27	4.3	4.3	96.3
	모르겠다	23	3.7	3.7	100.0
합계		621	99.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		
합계		622	100.0		

6. 통일방식에 대한 생각

통일방식에 대한 생각은 ① ‘가급적 빠른 통합’ 134명(21.5%), ② ‘평화체제를 유지 하면서 남북한 별개의 국가로 존속’ 358명(57.6%), ③ ‘현 체제 유지’ 127명(20.4%)으로 나타났다. 즉, 남북한이 평화체제를 유지하면서 남북한 별개의 국가로 존속하기 원하는 응답자가 78.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통일방식에 대한 생각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가급적 빠른 통합	134	21.5	21.6	21.6
	평화체제유지와 별개국가로 존속	358	57.6	57.8	79.5
	현 체제 유지	127	20.4	20.5	100.0
	합계	619	99.5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		
합계		622	100.0		

7.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협력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관계는 ① ‘한미 간 협력’ 143명(23.0%), ② ‘북미 간 협력’ 31명(5.0%), ③ ‘한중 간 협력’ 17명(2.7%), ④ ‘한일 간 협력’ 5명(0.8%), ⑤ ‘한미일 간 협력’ 100명(16.1%), ⑥ ‘한미북 간 협력’ 323명(51.9%)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의 협력관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가장 중요한 협력관계임을 나타내었다.

<표 2-7>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협력관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한미 간 협력	143	23.0	23.1	23.1
	북미 간 협력	31	5.0	5.0	28.1
	한중 간 협력	17	2.7	2.7	30.9
	한일 간 협력	5	.8	.8	31.7
	한미일 간 협력	100	16.1	16.2	47.8
유효	한미북 간 협력	323	51.9	52.2	100.0
	합계	619	99.5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5		
합계		622	100.0		

8. 최우선적 정부의 대북정책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부의 대북정책으로는 ① ‘북한의 비핵화 조치’ 241명(38.7%), ② ‘평화협정 체결’ 141명(22.7%), ③ ‘남북 간 경제협력’ 68명(10.9%), ④ ‘북한의 개혁·개방’ 113명(18.2%), ⑤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41명(6.6%) 등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조치가 우선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최우선적 정부의 대북정책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북한의 비핵화 조치	241	38.7	39.3	39.3
	평화협정 체결	141	22.7	23.0	62.3
	남북 간 경제협력	68	10.9	11.1	73.4
	북한의 개혁·개방	113	18.2	18.4	91.8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41	6.6	6.7	98.5
유효	기타	9	1.4	1.5	100.0
	합계	613	98.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9	1.4		
합계		622	100.0		

9. 국가 안보상황에 대한 전망

국가 안보상황에 대한 응답자들의 전망은 ① ‘크게 개선될 것이다’ 31명(5.0%), ② ‘조금 개선될 것이다’ 121명(19.5%), ③ ‘지금과 같이 유지될 것이다’ 286명(46.0%), ④ ‘조금 악화될 것이다’ 154명(24.8%), ⑤ ‘아주 악화될 것이다’ 22명(3.5%)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 가운데 24.5%는 국가 안보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표 2-9> 국가 안보상황에 대한 전망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크게 개선될 것이다	31	5.0	5.0	5.0
	조금 개선될 것이다	121	19.5	19.7	24.8
	지금과 같이 유지될 것이다	286	46.0	46.6	71.3
	조금 악화될 것이다	154	24.8	25.1	96.4
	아주 악화될 것이다	22	3.5	3.6	100.0
유효	합계	614	98.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8	1.3	
합계		622	100.0		

10.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응답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아주 잘하고 있다’ 30명(4.8%), ② ‘조금 잘하고 있다’ 67명(10.8%), ③ ‘보통이다’ 248명(39.9%), ④ ‘조금 못하고 있다’ 130명(20.9%), ⑤ ‘아주 못하고 있다’ 139명(22.3%)으로 나타났다. 즉, 55.5%가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2년의 결과치인 60.1%와 비교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조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10>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아주 잘하고 있다	30	4.8	4.9	4.9
	조금 잘하고 있다	67	10.8	10.9	15.8
	보통이다	248	39.9	40.4	56.2
	조금 못하고 있다	130	20.9	21.2	77.4
	아주 못하고 있다	139	22.3	22.6	100.0
	합계	614	98.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8	1.3		
합계		622	100.0		

[C.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정책]

1. 북한과 대한민국의 민족성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과의 민족성에 대하여 ① ‘북한과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300명(48.2%), ② ‘이제는 같은 민족이 아니다’ 167명(26.8%), ③ ‘모르겠다’ 146명(23.5%)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같은 민족이 아니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을 하여 분단의 세월이 우리들의 사고를 바꾸어 놓은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응답자의 48.2%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지만, 2022년의 결과치 46.9% 보다는 조금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표 3-1> 북한과 대한민국의 민족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북한과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300	48.2	48.9	48.9
	이제는 같은 민족이 아니다	167	26.8	27.2	76.2
	모르겠다	146	23.5	23.8	100.0
	합계	613	98.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9	1.4		
합계		622	100.0		

2. 북한에 대한 생각

북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1차적으로는 ‘①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다’가 394명(63.3%)를 차지하여, 2022년의 결과치인 57.2%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응답자들이 긴박한 남북관계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 북한에 대한 생각 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①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다	394	63.3	64.5	64.5
	② 협력의 대상이다	137	22.0	22.4	86.9
	③ 통일의 대상이다	43	6.9	7.0	93.9
	④ 경계의 대상이다	26	4.2	4.3	98.2
	⑤ 도움의 대상이다	4	.6	.7	98.9
	⑥ 우리의 적이다	7	1.1	1.1	100.0
합계		611	98.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1	1.8		
합계		622	100.0		

그리고 응답자들이 2차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은 ‘③ 통일의 대상이다’ 225명(36.2%)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의 38.5%와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표 3-3> 북한에 대한 생각 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①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다	23	3.7	3.9	3.9
	② 협력의 대상이다	102	16.4	17.4	21.4
	③ 통일의 대상이다	225	36.2	38.5	59.8
	④ 경계의 대상이다	206	33.1	35.2	95.0
	⑤ 도움의 대상이다	17	2.7	2.9	97.9
	⑥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6	1.0	1.0	99.0
합계		585	94.1	100.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7	5.9		
합계		622	100.0		

그리고 응답자들이 3차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은 ‘④ 경계의 대상이다’가 147명(23.6%)으로, 2022년의 ‘⑤ 도움의 대상이다’ (20.9%)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하여 많은 응답자들의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3-4> 북한에 대한 생각 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①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다	23	3.7	3.9	3.9
	② 협력의 대상이다	15	2.4	2.6	6.5
	③ 통일의 대상이다	58	9.3	9.9	16.5
	④ 경계의 대상이다	147	23.6	25.2	41.7
	⑤ 도움의 대상이다	93	15.0	16.0	57.6
	⑥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53	8.5	9.1	66.7
합계		194	31.2	33.3	100.0
합계		583	93.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9	6.3		
합계		622	100.0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며, 한편으로 통일의 대상이고, 동시에 경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김정은 정권에 대한 호감도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호감도에 대하여 ① ‘아주 좋다’ 3명(0.5%), ② ‘조금 좋다’ 14명(2.3%), ③ ‘보통이다’ 120명(19.3%), ④ ‘조금 안좋다’ 145명(23.3%), ⑤ ‘아주 안좋다’ 331명(53.2%)으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인 평가는 76.5%로 나타났다.

2022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9%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하면, 2023년의 결과치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북한의 잦은 미사일 도발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표 3-5> 김정은 정권에 대한 호감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아주 좋다	3	.5	.5	.5
	조금 좋다	14	2.3	2.3	2.8
	보통이다	120	19.3	19.6	22.3
	조금 안좋다	145	23.3	23.7	46.0
	아주 안좋다	331	53.2	54.0	100.0
	합계	613	98.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9	1.4		
	합계	622	100.0		

4. 북한의 향후 변화 가능성

북한의 향후 변화 가능성에 대하여 ① ‘적극적으로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다’ 20명(3.2%), ② ‘소극적으로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다’ 212명(34.1%), ③ ‘개혁·개방을 하지 않을 것이다’ 275명(44.2%) , ④ ‘모르겠다’ 104명(16.7%)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37.3%는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결과치는 2022년의 결과치인 37.8%와 비교하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표 3-6> 북한의 향후 변화 가능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적극적으로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다	20	3.2	3.3	3.3
	소극적으로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다	212	34.1	34.7	38.0
	개혁·개방을 하지 않을 것이다	275	44.2	45.0	83.0
	모르겠다	104	16.7	17.0	100.0
	합계	611	98.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1	1.8		
	합계	622	100.0		

5.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 가능성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 가능성에 대하여 ① ‘100% 포기할 것이다’ 8명(1.3%), ② ‘50% 정도 가능하다’ 35명(5.6%), ③ ‘포기하는 척만 할 것이다’ 230명(37.0%), ④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93명(47.1%), ⑤ ‘모르겠다’ 47명(7.6%)으로 나타났다.

2022년 결과치와 비교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

는 응답자(71.0%)보다 2023년의 결과치 84.1%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많은 국민들이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7>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 가능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00% 포기할 것이다	8	1.3	1.3	1.3
	50% 정도 가능하다	35	5.6	5.7	7.0
	포기하는 척만 할 것이다	230	37.0	37.5	44.5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93	47.1	47.8	92.3
	모르겠다	47	7.6	7.7	100.0
합계	613	98.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9	1.4		
합계		622	100.0		

6.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

북핵 문제 해결의 기대감에 대하여 ① ‘100% 가능하다’ 6명(0.8%), ② ‘50% 정도 가능하다’ 60명(9.6%), ③ ‘조금 어렵다’ 326명(52.4%), ④ ‘절대 불가능하다’ 185명(29.7%), ⑤ ‘모르겠다’ 37명(5.9%)으로 나타났다. 즉, 북핵문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10.4%로 나타나 북핵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응답자(69.8%)에 비하여 월등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핵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응답자(82.1%)가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치는 2022년의 핵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응답자(72.6%)보다 많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3-8> 북핵 문제 해결의 기대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00% 가능하다	5	.8	.8	.8
	50% 정도 가능하다	60	9.6	9.8	10.6
	조금 어렵다	326	52.4	53.2	63.8
	절대 불가능하다	185	29.7	30.2	94.0
	모르겠다	37	5.9	6.0	100.0
합계	613	98.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9	1.4		
합계		622	100.0		

7.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북정책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북정책의 첫 번째 내용은 ‘①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363명(58.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최우선 대북정책 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북한의 비핵화 조치	363	58.4	59.4	59.4
평화협정 체결	138	22.2	22.6	82.0
남북 간 경제협력	33	5.3	5.4	87.4
북한의 개혁 및 개방	33	5.3	5.4	92.8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20	3.2	3.3	96.1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9	1.4	1.5	97.5
남북 간 문화 및 체육	11	1.8	1.8	99.3
교류				
남북 간 교육협력	4	.6	.7	100.0
합계	611	98.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1	1.8		
합계	622	100.0		

그 다음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북정책은 '㉔ 평화협정 체결'로 212명(34.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최우선 대북정책 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북한의 비핵화 조치	40	6.4	6.6	6.6
평화협정 체결	212	34.1	34.8	41.3
남북 간 경제협력	115	18.5	18.9	60.2
북한의 개혁 및 개방	119	19.1	19.5	79.7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57	9.2	9.3	89.0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41	6.6	6.7	95.7
남북 간 문화 및 체육	16	2.6	2.6	98.4
교류				
남북 간 교육협력	10	1.6	1.6	100.0
합계	610	98.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2	1.9		
합계	622	100.0		

3번째로 추진되어야 할 대북정책으로 '㉔ 북한의 개혁 및 개방'이 159명(25.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최우선 대북정책 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북한의 비핵화 조치	36	5.8	5.9	5.9
평화협정 체결	45	7.2	7.4	13.3
남북 간 경제협력	96	15.4	15.8	29.1
북한의 개혁 및 개방	159	25.6	26.1	55.2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75	12.1	12.3	67.5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78	12.5	12.8	80.3
남북 간 문화 및 체육	74	11.9	12.2	92.4
교류				
남북 간 교육협력	46	7.4	7.6	100.0
합계	609	97.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3	2.1		
합계	622	100.0		

응답자들은 북한에 대한 대북정책으로 먼저 북한의 비핵화이며, 이어서 평화협정 체결, 북한의 개혁 및 개방을 생각하고 있었다.

8. 통일을 위한 선두 주자

통일을 위하여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는 선두 주자에 대하여 ‘① 한국’ 301명 (48.4%)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2번째의 국가는 ‘③ 북한’ 182명(29.3%), 3번째는 ‘③ 미국’ 136명(21.9%)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의 결과치는 1번째 미국, 2번째 한국, 3번째는 북한의 순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미국과 한국의 순위가 바뀌어 한국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통일을 위한 선두 주자 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한국	301	48.4	49.2	49.2
	미국	49	7.9	8.0	57.2
	북한	233	37.5	38.1	95.3
	중국	8	1.3	1.3	96.6
	국제사회	12	1.9	2.0	98.5
	기업	3	.5	.5	99.0
	시민단체	1	.2	.2	99.2
	한국 국민 개개인	5	.8	.8	100.0
	합계	612	98.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0	1.6	
합계		622	100.0		

<표 3-13> 통일을 위한 선두 주자 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한국	165	26.5	27.0	27.0
	미국	168	27.0	27.5	54.4
	북한	182	29.3	29.7	84.2
	중국	64	10.3	10.5	94.6
	일본	2	.3	.3	94.9
	러시아	5	.8	.8	95.8
	국제사회	16	2.6	2.6	98.4
	기업	5	.8	.8	99.2
	시민단체	2	.3	.3	99.5
	한국 국민 개개인	3	.5	.5	100.0
합계	612	98.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0	1.6		
합계		622	100.0		

<표 3-14> 통일을 위한 선두 주자 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한국	62	10.0	10.1	10.1
	미국	136	21.9	22.2	32.4
	북한	107	17.2	17.5	49.8
	중국	72	11.6	11.8	61.6
	일본	10	1.6	1.6	63.2
	러시아	32	5.1	5.2	68.5
	국제사회	108	17.4	17.6	86.1
	기업	16	2.6	2.6	88.7
	시민단체	14	2.3	2.3	91.0
	한국 국민 개개인	55	8.8	9.0	100.0
합계	612	98.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0	1.6		
합계		622	100.0		

제3장 결론 및 시사점

2023년에 들어서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및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는 9월 13일까지 23회에 이르고, 3차례에 걸친 수중 드론(핵어뢰) 발사도 이루어졌으며, 2차례에 걸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도 있었다. 4월에는 고체형 연료를 도입한 ICBM ‘화성-18형’과 신형 핵탄두 ‘화산-31’ 등 신무기체계를 선보였다. 이를 통해 북한은 국제제재가 그들의 핵능력 건설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려 하였고, 자신들의 정권 및 체제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려 하였다.⁴⁾

북한에 대하여 전 세계가 요구하는 주요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구나 북한의 계속되는 핵개발은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체제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이유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하여 주변국과의 관계 정립과 통일문제 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북한과 접경을 하고 있는 강원도와 경기도의 대학생들과 주민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2023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강원도 및 경기도의 대학생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632부의 설문지 가운데 인적사항에 대한 답이 없거나 설문항목에 대하여 불성실한 답을 한 10부를 제외하고, 622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023년도에 실시한 설문을 통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문에 답한 응답자들의 60.2%가 통일이 대한민국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북통일이 불가능하거나 늦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93.6%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① ‘반드시 통일돼야 한다’ 134명(21.5%), ② ‘조금 필요하다’ 132명(21.2%), ③ ‘보통이다’ 122명(19.6%), ④ ‘아직 시기상조다’ 177명(28.5%), ⑤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57명(9.2%)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42.7%가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북통일의 가능성에 대하여 응답자의 62.9%가 남북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2022년도의 설문조사에서 남북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65.7%의 응답자에 비하여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남북통일의 실현 전망에 대하여는 남북통일이 불가능하거나 늦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93.6%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의 결과치인 86.8%와 비교하면,

4) 차두현, (2023). “2023년 북한 동향 분석: 핵집착의 지속과 경로종속성.” 아산정책연구원, issue brief, 2023-20.

조금 높은 수준이다.

국민들의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도는 응답자의 82.5%가 국가안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일방식에 대한 생각은 남북한이 평화체제를 유지하면서 남북한 별개의 국가로 존속하기 원하는 응답자가 78.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관계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의 협력관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가장 중요한 협력관계임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부의 대북정책으로는 북한에 대한 비핵화 조치가 우선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안보상황에 대한 응답자들의 전망은 응답자들 가운데 24.5%는 국가 안보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응답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55.5%가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2년의 결과치인 60.1%와 비교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성에 대하여 응답자의 48.2%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지만, 2022년의 결과치 46.9% 보다는 조금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1차적으로는 ‘①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다’가 394명(63.3%)를 차지하여, 2022년의 결과치인 57.2%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응답자들이 긴박한 남북관계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응답자들이 3차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은 ‘④ 경계의 대상이다’가 147명(23.6%)으로, 2022년의 ‘⑤ 도움의 대상이다’ (20.9%)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하여 많은 응답자들의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며, 한편으로 통일의 대상이고, 동시에 경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호감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는 76.5%로 나타났다. 2022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9%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하면, 2023년의 결과치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북한의 잦은 미사일 도발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향후 변화 가능성에 대하여 응답자의 37.3%는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이 결과치는 2022년의 결과치인 37.8%와 비교하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 가능성에 대하여 84.1%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값은 2022년 결과치 71.0%와 비교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매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많은 국민들이 북한의 의도를 파

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의 기대감에 대하여 북핵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응답자(82.1%)가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치는 2022년의 핵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응답자(72.6%)보다 많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은 북한에 대한 대북정책으로 먼저 북한의 비핵화이며, 이어서 평화협정 체결, 북한의 개혁 및 개방을 생각하고 있었다.

통일을 위하여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는 선두 주자에 대하여 ‘① 한국’ 301명(48.4%)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다음으로 북한(29.3%), 미국(21.9%)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의 결과치는 1번째 미국, 2번째 한국, 3번째는 북한의 순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미국과 한국의 순위가 바뀌어 한국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북한 사정을 분석해 보면, 당분간 북한의 대남정책은 호전성을 지속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2023년 하반기 남북한 관계에서도 대화의 기회보다는 도발의 위험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한미일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설문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국민들의 남북통일에 대한 인식도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